
일본 교통문화체험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2023. 3. 28 ~ 3. 31



인천교통공사
【연수관리팀】

목 차

I . 추진 방향	1
II . 연수 개요	1
III . 주요 방문지	2
가. 철도박물관	
나. 일본자동차연맹	
다. 신주쿠고속버스터미널	
VI . 교통문화체험사례	9
가. 일본택시	
나. 일본지하철	
V . 교육분야	10
가. 고령자교통안전교육	
나. 자전거교통안전교육	
VI . 반영과제	11
※ 연수자 명단	12

일본 교통문화체험 국외연수 결과 보고서

I 추진방향

- ☐ 선진지 국외연수를 통해 고품격 교통서비스 및 선진국가의 교통정책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
- ☐ 선진교통기관의 다양한 교통문화와 제도를 직접 체험하여 개인별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인 대처능력 향상
- ☐ 전국 시·도 교통(문화)연수원 간 상호협력 관계 모색 및 우수한 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교통연수원의 발전 방향 제시

II 연수개요

- ☐ 연수기간 : 2023. 3. 28.(화) ~ 31.(금) 【3박 4일】
- ☐ 방문국가 : 일본(동경 일원)
- ☐ 주 최 : 전국교통(문화)연수원협의회
- ☐ 연수인원 : 총 34명 (원장 5명, 직원 29명)

연번	연수원명	일본 교통문화체험 국외연수		총인원	비 고
		원 장	직 원		
	계	5	29	34명	
1	경 남	1	2	3	
2	부 산	1	1	2	
3	대 구	1	2	3	
4	광 주	0	3	3	
5	전 남	1	2	3	
6	인 천	1	2	3	
7	대 전	0	2	2	
8	경 기	0	6	6	
9	충 북	0	2	2	
10	충 남	0	3	3	
11	전 북	0	4	4	
12	경 북	0	0	0	

□ 일정별 주요내용

일자별	국외연수 방문(견학)기관	비 고
3/28(화)	부산 및 인천 출발, 도쿄 도착 철도박물관 견학	
3/29(수)	일본자동차연맹 본부 교통환경부 조사연구과 방문 신주쿠 고속버스터미널 견학	
3/30(목)	도쿄 일원 시내 및 고속도로 현장 견학	
3/31(금)	도쿄 출발 - 부산 및 인천 도착	

Ⅲ 주요 방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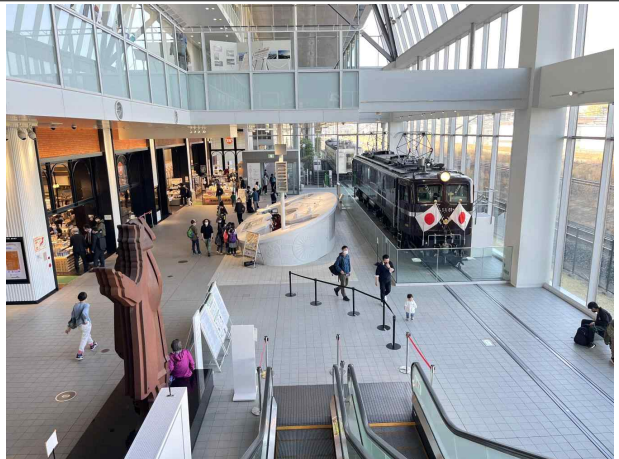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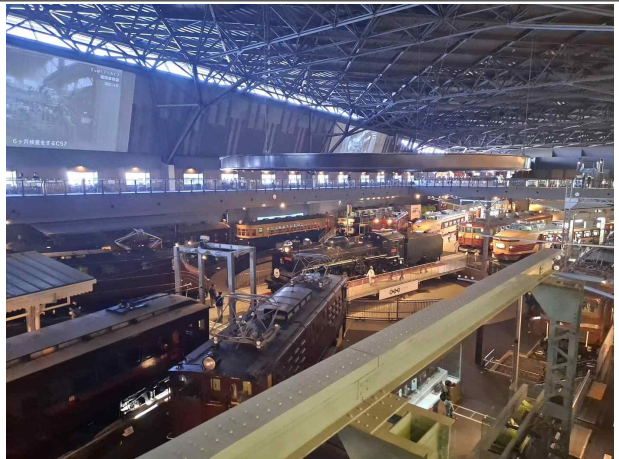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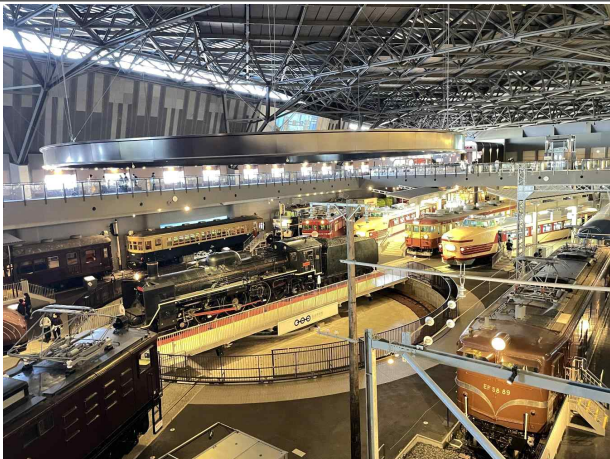
□ 철도 박물관

- 일 시 : 2023. 3. 28.(화), 15:30
- 장 소 :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330-0852 Saitama, Omiya Ward, Onaricho, 3)
- 참 석 자 : 34명
 - 연수단 : 이수영 원장 등 34명
 - 면담자 : Sugimaru Hinata, 048-651-0088
- 견학지 개요
 - 철도 박물관은 동일본 여객철도(JR 동일본)의 창립 20주년의 메인 기념사업과, 2006년 폐관한 아키하바라 근처의 교통박물관의 대체시설로 2007년 10월 14일 일본 철도의 날에 개관 일본의 철도박물관 중 가장 크고 자료가 많은 박물관임.
 - 설립목적
 - 일본과 세계 철도에 관한 유산과 자료를 널리 사람들에게 공개하며, 일본국유철도의 개혁과 동일본 여객철도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조사 연구를 실시함
 - 철도 시스템의 변천을 철도차량 등의 실물 전시를 중심으로 각각의 시대 배경을 섞으면서 일본 산업발전의 역사로 공개함

- 철도의 원리와 구조, 최신 철도 기술, 그리고 미래의 철도 기술을 어린이들에게 모형과 시뮬레이션, 놀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체험적으로 교육함
- 관내 전시
 - 차량 스테이션 : 철도 차량들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당시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시실임. 1층에서는 36량의 실제차량을 전시하고, 2층 구역에는 철도 차량의 변천을 차량 모형을 중심으로 소개함.
 - 과학 스테이션 : 전시 장치를 사용한 체험과 실험을 통해 철도와 관련된 신기한 점을 발견하여 과학의 관점에서 소개함.
 - 업무 스테이션 : 철도 전문가가 업무를 담당하는 모습이나 각 업무의 연관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전시실임.
 - 미래 스테이션 : 미래의 철도를 모두 함께 생각하는 창조형 전시실임.
 - 역사 스테이션 : 일본에 철도가 탄생 한 지 약 150년, 철도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로 이룩한 발전 과정을 실물 자료와 사진으로 소개함.

○ 방문 시사점

- 일본의 철도 역사는 140여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으며, 철도는 일본인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 철도박물관은 일본의 철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규모가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시관으로 일본이 근현대화를 겪으면서 철도산업 발전 연대기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근현대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철도과학을 한눈에 보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이후로 다양한 대체 교통편이 발전하고, 인구감소, 코로나19 및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생활패턴이 변하고 통근 등의 감소로 인해 민영화된 철도회사들이 점점 경영난에 빠져들고 있음.



일본자동차 연맹(JAF)

- 일 시 : 2023. 3. 29.(수), 10:00
- 장 소 : 1-1-30 Shiba Daimon Mitato-ku, Tokyo Japan
Automobile Hall
- 참 석 자 : 34명
 - 연수단 : 이수영 원장 등 34명
 - 면담자 : 치바타상(교통안전부장) 등 6명, 03-6833-9120
- 방문지 개요
 - 일본자동차연맹(일본어: 日本自動車連盟)은 자동차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는 것 외에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 할 목적으로 설립된 일본의 사단법인 형태로 약칭은 JAF. 회원수는 일본인 4명 중 1명이 회원으로 약 2100만명이며, 국제 자동차 연맹(FIA)에 가입한 일본의 유일한 단체임
 - 한국의 보험회사적인 성격과 학교,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등을 하는 기관임.
 - 사업내용
 - 21년도 기준 216만건 처리(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견인서비스 등)
 -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차량 문제, 운전자와 라이더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24시간·365일, 전국 어디에라도 출동하고 있는 한국의 보험사 형태의 사업도 하고 있음.
 - 1960년대, 1980년대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 지자체 경찰이 합동 활동 전개하여 도로정비 및 신호기를 정비 2020년 기준 2,61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사회 문제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생활이나 의식의 변화를 파악해, 개인이나 사회 전체를 향한 개발 활동이나 홍보 동영상의 전달, 기관지예의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음.
 - ① 실기형 강습회 개최
 - ② 첨단 안전기술의 보급 개발 활동
 - ③ 교통안전 개발 웹 콘텐츠
 - ④ ‘배려 티 드라이브’ 캠페인

⑤ 교통안전실행위원회를 통한 도로환경 개선 제안

⑥ 외국운전면허증 번역

○ 방문 시사점

-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에서 따로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한 교통안전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높은 교통안전의식을 구현하고 있음.
- 연수단과의 간담회 중에서도 한국의 교통안전교육기관과 역할이 매우 비슷함을 체감할 수 있었음.
- 교통안전 홍보 영상등을 직접 보면서 일본의 교통문화가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을 통해 정착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공감할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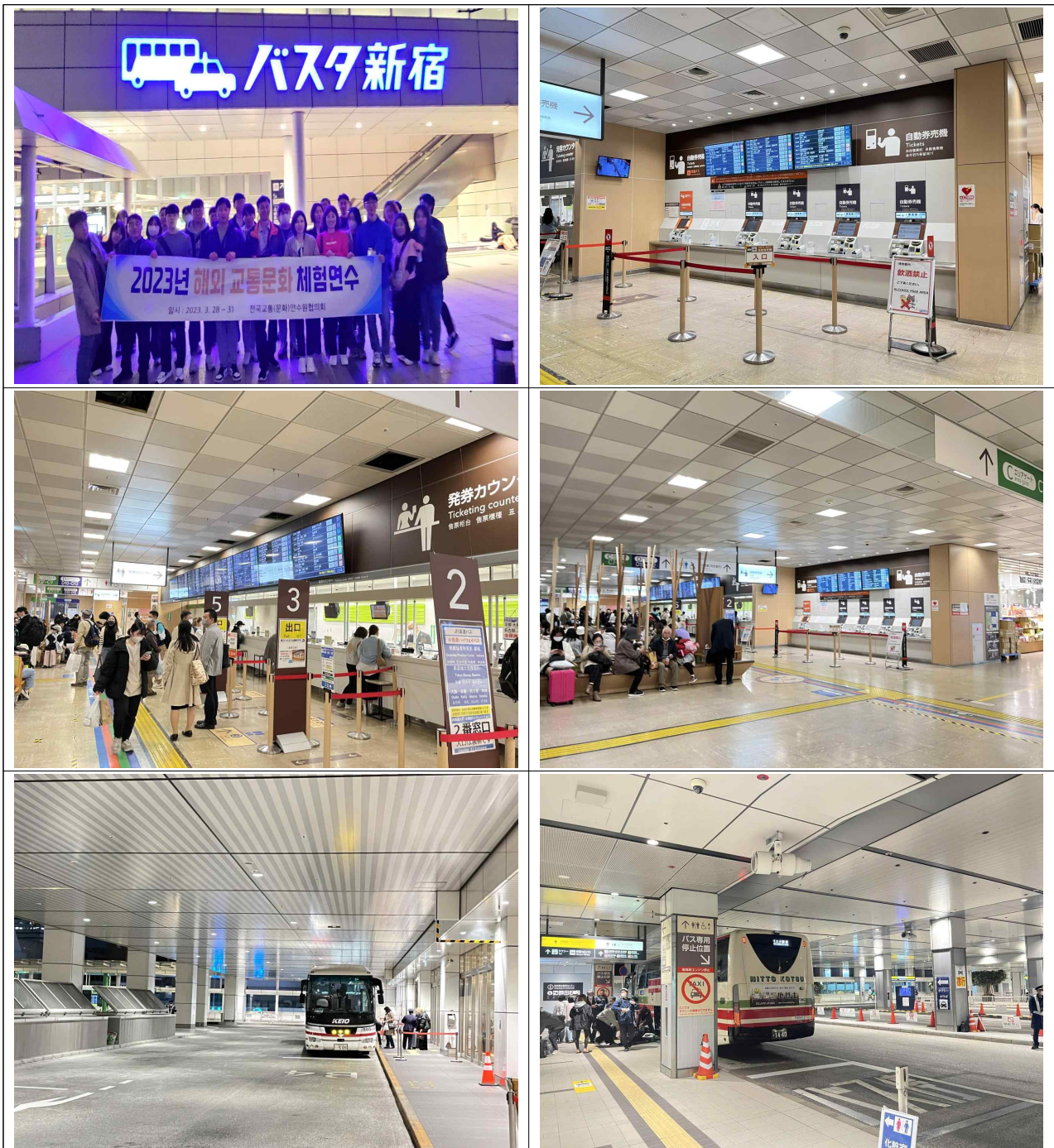


☐ 신주쿠 고속버스터미널(바스타 신주쿠)

- 일 시 : 2023. 3. 29.(수), 18:00
- 장 소 : 신주쿠 고속버스 터미널
(〒151-0051 Tokyo, 20 shibuya city)
- 참 석 자 : 34명
 - 연수단 : 이수영 원장 등 34명
- 방문지 개요
 - 도쿄, 신주쿠와 일본 전국(39 도,부,현) 300개 도시의 고속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일본 최대 고속 터미널 바스타 신주쿠(정식 명칭은 신주쿠 남쪽출구 교통 터미널)는 신주쿠역 주변에 분산되어 있던 버스 발착소를(2016년 4월에 JR신주쿠역 남쪽출구 앞)한 곳으로 통합함.
 - 버스 발착 편수는 1일 최대 약 1600편 이상이며 버스 정류장의 수는 15곳, 운행사업자수는 117사 등으로 일본 최대 규모임.

○ 견학 시사점

- 우리나라의 서울경부고속버스터미널 형태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승,하차장이 3층 및 4층에 위치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일본은 버스기사님들이 승하차시 승객의 짐을 웃으면서 신고 내리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운수종사자에게 직업의식의 함양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IV 교통문화 체험사례

일본 택시

- 일본의 택시는 기본요금은 500엔(약5,000원)으로 심야할증료, 콜택시 추가요금 발생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 오래된 차량연식에도 불구하고 실외는 물론 실내에도 항상 청결함을 유지하고 친절함까지도 추가되어 택시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함.



일본 지하철

-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하로 이동하는 철도만을 지하철로 불리며 오래된 지하철 역사로 다소 노후 된 분위기나 지하철의 내부는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함.
- 도쿄중심부의 노선은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으며, 많은 관광객을 위해 영어, 한국어, 중국어까지 안내되어 있고 지하철역의 중심부에 인포메이션 센터 및 지하철 직원이 상주하고 있어 어느 누구도 목적지를 쉽게 찾고 이동할 수 있음.
- 지하철 내부는 배려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일본인들의 정서에 걸맞게 매우 조용하며 늦은 시간까지도 이동하여 도쿄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임.



V 교육분야

○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 2009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75세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갱신기간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거주지 관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강습예비검사를 받아야 함.
- 강습내용은 동영상을 통한 교통규칙의 재확인, 동체시력 측정, 운전지도원 동승 차량운전 및 조연 청취로 구성.
- 강습예비검사는 시간지남력 검사, 기억회생검사, 시계 그리기 검사로 구성됨.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 일본의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은 초등학생 및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나 의무교육은 아니나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참여하고 있음.

- 자전거 교육의 내용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 갖춰야 하는 안전 장비부터 커브구간, 직선구간 등에서의 안전운전 내용과 특히 대형차량 주변을 주행할 때 안전하게 주행하는 체험교육 이수
- 도로교통법에 적용되는 자전거는 경차에 해당되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
- 자전거 운행과 관련된 위험행동별 처벌 현황
 -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위반
 - 2명이상 자전거 타기 금지
 - 자전거를 타면서 수다 떠는 것 금지 위반
 - 밤에 자전거 주행시 전조등 켜기 위반
 - 신호위반, 일시멈춤 등의 안전표시 위반
 - 우천시 우산들고 주행금지
 - 주행중 휴대폰을 손에쥐거나 통화행위 금지, 음악청취 금지

VI 반영과제

○ 추진과제

- 운수종사자 교육 시 안전운전에 대한 배려문화와 친절서비스 강조토록 교육에 접목
- 차량외부 및 복장에 대한 기본을 강조하고 지키는 안전한 교통 문화를 정착하는데 집중
- 계층별 교통안전교육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계획적인 교육기획 등 전문가 초빙교육 실시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입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